

2020 October Vol.97

대입정보매거진

대학입학 정보를 한눈에 받아보세요!



대입뉴스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대입뉴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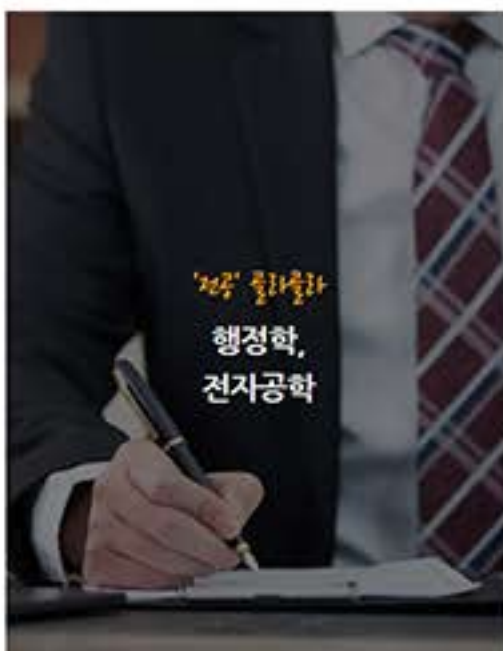
대입정보 활용하기 1
2021학년도 수시
논술·면접전형 일정 안내



대입정보 활용하기 2
2021학년도 수능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



대입정보 활용하기 3
2021학년도 대학별 수능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전공' 골라 골라!
행정학,
전자공학



선생님 칼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준비방법



'어디가' 활용하기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20학번



[대입뉴스](#) |
 [대입정보 활용하기](#) |
 [연관 기관 둘러보기](#) |
 [선생님 알림](#) |
 [이디가 활용수거](#)



서울특별시 공천구 서부엇길 606(가산동 543-1) 대성다플렉스 A동 23층 TEL 02-6919-3855
 Copyright 2015. KCUE all rights reserved.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발표

-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간소화 기조 유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에 따른 대입전형 관련 예외 조항 신설
-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평가 참여 수준 구체화
- 대학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한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기한 조정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확정·발표하였다. 대교협은 그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자문단을 운영하여 시안을 마련하고, 지역별 입학관리자협의회 간담회, 대학 및 교육청 대상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대입전형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년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향후 전형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를 대학이 판단하여 그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대학의 안정적인 충원을 위해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 기한을 조정하였다.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관련 대입 전형 예외조항 신설

-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원자격 미충족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학이 그 사유에 따라 자격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한 지원자격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학은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음”

2.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한 평가자 참여 수준 명시

- ◆ 공정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을 위해 평가 단계에서 다수 평가자의 참여 수준을 구체화하여 신뢰성 확보
 -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평가 세부단계에서 다수의 평가위원(입학사정관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3.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 시간 조정

- ◆ 미등록 충원 및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각 대학의 안정적인 충원을 기대함
 - “수시, 정시, 추가모집 합격통보 마감 시간: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 ~ 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추가모집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 마감 일자 연장

- "추가모집 원서 접수/전형/합격자 발표/ 등록: 2023. 02. 20.(월) ~ 28.(화)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18:00까지"

4.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는 2022. 09. 13.(화) ~ 17.(토)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2. 09. 18.(일) ~ 12. 14.(수)까지임

| 구 분 | 내 용 |
|----------------------|---|
| 원서접수기간 | 2022. 09. 13.(화) ~ 17.(토) 중 3일 이상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022. 07. 04.(월) ~ 08.(금) |
| 전형기간 | 2022. 09. 18.(일) ~ 12. 14.(수) (88일) |
| 합격자 발표 | 2022. 12. 15.(목) 까지 |
| 등록기간 | 2022. 12. 16.(금) ~ 19.(월) (4일) |
| 수시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 2022. 12. 26.(월)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 수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 2022. 12. 27.(화) |

◆ 정시모집

- 원서접수는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기간은 2023. 01. 05.(목) ~ 02. 01.(수)까지임

| 구 분 | 내 용 |
|----------------------|--|
| 원서접수기간 | 2022. 12. 29.(목) ~ 2023. 01. 02.(월) 중 3일 이상 |
| 전형 기간 | 가군 2023. 01. 05.(목) ~ 12.(목) (8일) |
| | 나군 2023. 01. 13.(금) ~ 20.(금) (8일) |
| | 다군 2023. 01. 25.(수) ~ 02. 01(수) (8일) |
| 합격자 발표 | 2023. 02. 06.(월) 까지 |
| 등록기간 | 2023. 02. 07.(화) ~ 09.(목) (3일) |
| 정시 미등록 총원 합격통보 마감 | 2022. 02. 16.(목)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정시 미등록 총원
등록 마감

2023. 02. 17.(금)

◆ 추가모집

- 2023. 02. 20.(월) ~ 28.(화) 사이에 원서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하며, 등록마감은 2023. 02. 28.(화)까지임

| 구 분 | 내 용 |
|---------------------------|---|
| 원서 접수, 전형일, 합격자 발표, 등록 | 2023. 02. 20.(월) ~ 28.(화) ※ 합격통보마감: 2023. 02. 28.(화)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 통보만 가능함 |
| 등록마감 | 2023. 02. 28.(화) |

□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교협 홈페이지(www.kcue.or.kr) 및 대입정보포털 사이트(www.adiga.kr)에 게재하며, 향후 책자배포 및 권역별 대학 설명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이다.

- 작년보다 55,301명 감소한 493,433명 지원 -

접수 및 변경 기간

접수 장소

지원자 현황

(단위: 명)

| 학년도 | 합 계 | 자 격 별 | | | 성 별 | |
|------|-------------------|--------------------|--------------------|------------------|--------------------|--------------------|
| | | 재학생 | 졸업생 | 검정고시 등 | 남 | 여 |
| 2021 | 493,433 (100%) | 346,673 (70.2%) | 133,069 (27.0%) | 13,691 (2.8%) | 254,027 (51.5%) | 239,406 (48.5%) |
| 2020 | 548,734 (100%) | 394,024 (71.8%) | 142,271 (25.9%) | 12,439 (2.3%) | 282,036 (51.4%) | 266,698 (48.6%) |
| 증 감 | △55,301 | △47,351 | △9,202 | 1,252 | △28,009 | △27,292 |

(단위: 명)

| 구분 | 국어 | 수학 | | 영어 | 한국사 | 사회·과학·직업탐구 | | | 제2외국어 /한문 |
|-----|--------------------|--------------------|--------------------|--------------------|-------------------|--------------------|--------------------|-----------------|--------------------|
| | | 가형 | 나형 | | | 사탐 | 과탐 | 직탐 | |
| 선택 | | 155,720 [33.0%] | 316,039 [67.0%] | | | 261,887 [54.7%] | 211,427 [44.1%] | 5,713 [1.2%] | |
| | 490,991 (99.5%) | 471,759 (95.6%) | | 489,021 (99.1%) | 493,433 (100%) | 479,027 (97.1%) | | | 77,174 (15.6%) |
| 미선택 | 2,442 (0.5%) | 21,674 (4.4%) | | 4,412 (0.9%) | - (0%) | 14,406 (2.9%) | | | 416,259 (84.4%) |
| 계 | 493,433 (100%) | | | | | | | | |

※ []의 수치는 해당 영역 전체 지원자 대비 비율임.

지원자 증감 내역

○ 지원 자격별·성별 현황

| 〈주요 현황〉 | |
|--|--|
| 지원자수 전년 대비 55,301명(10.1%) 감소 | |
| * 지원자 수: '20학년도 548,734명 → '21학년도 493,433명 | |
| 졸업생수 전년 대비 9,202명(6.5%) 감소 | |
| * 졸업생 수: '20학년도 142,271명(25.9%) → '21학년도 133,069명(27.0%) | |

-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년 대비 55,301명 감소한 493,433명이 지원하였음.
- 자격별로는 재학생이 전년 대비 47,351명 감소한 346,673명(70.2%), 졸업생은 9,202명 감소한 133,069명(27.0%),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1,252명 증가한 13,691명(2.8%)임.
-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28,009명 감소한 254,027명(51.5%), 여학생은 27,292명 감소한 239,406명(48.5%)임.

○ 선택 영역·과목별 현황

| 〈주요 현황〉 | |
|---|--|
| 사회탐구 영역 지원자수 전년 대비 25,850명(9.0%) 감소 | |
| * 사회탐구: '20학년도 287,737명(54.7%) → '21학년도 261,887명(54.7%) | |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수 전년 대비 12,236명(13.7%) 감소 | |
| * 제2외국어/한문: '20학년도 89,410명(16.3%) → '21학년도 77,174명(15.6%) | |

- 영역별로는 전체 지원자 493,433명 중 국어 영역은 490,991명(99.5%), 수학 영역은 471,759명(95.6%), 영어 영역은 489,021명(99.1%), 한국사 영역은 493,433명(100%), 탐구 영역은 479,027명(97.1%),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77,174명(15.6%)이 선택함.
- 수학 영역 지원자 471,759명 중 가형 선택자는 155,720명(33.0%), 나형 선택자는 316,039명(67.0%)임.
- 탐구 영역 지원자 479,027명 중 사회탐구 영역 선택자는 261,887명(54.7%), 과학탐구 영역 선택자는 211,427명(44.1%), 직업탐구 영역 선택자는 5,713명(1.2%)임.
-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에서 최대 과목수인 2과목을 선택한 지원자가 477,269명으로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선택자(479,027명)의 99.6%를 차지함.
- 사회탐구 영역 지원자 261,887명 중 155,710명(59.5%)이 '생활과 윤리'를 선택함.
- 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211,427명 중 131,684명(62.3%)이 '생명과학 I'을 선택함.
- 직업탐구 영역 지원자 5,713명 중 2,213명(38.7%)이 '상업 경제'를 선택함.
- 제2외국어/한문 영역 지원자 77,174명 중 52,443명(68.0%)이 '아랍어 I'을 선택함.

2021학년도 논술 일정 변경 안내

개요

2021학년도 수시 요강이 5월 1일자로 대학별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전형 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8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대학별고사 일정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기존의 일정에서 변화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시 원서접수 지원전략 수립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0년 8월 31일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현황>에 근거하여 제작됨.
2. 추후에 수정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함.

논술전형 일정 변경

| 대학교 | 지역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기대 | 서울 | 11월 14일(토) | 12월 20일(일) |
| 경기대 | 경기 | 11월 14일(토) | 12월 20일(일) |
| 경희대 | 서울 | 12월 5일(토) ~ 6일(일) | 12월 5일(토) ~ 7일(월) 의학계열(의,한,치) 12월 7일(월) |
| 서울시립대 | 서울 | 10월 24일(토) | 10월 24일(토) : 인문계 10월 25일(일) : 자연계 |
| 성신여대 | 서울 | 10월 11일(일) | 10월 10일(토) ~ 11일(일) |
| 세종대 | 서울 | 12월 12일(토)오전 : 인문,사회,법학 12월 12일(토)오후 : 경영,호텔 12월 13일(일)오전 : 자연,생명,소프트 12월 13일(일)오후 : 전자, 공과 | 12월 12일(토)오전 : 인문 12월 12일(토)오후 : 사회,경영 12월 12일(토)저녁 : 호텔,법학 12월 13일(일)오전 : 자연,생명,전자 12월 13일(일)오후 : 소프트융합 12월 13일(일)저녁 : 지능기,기계항공 12월 14일(월)오전 : 공과대학 |
| 송실대 | 서울 | 12월 5일(토) | 12월 4일(금) ~ 5일(토) |
| 연세대 | 서울 | 10월 10일(토) | 12월 7일(월): 인문사회계열 12월 8일(화) : 자연계열 |
| 이화여대 | 서울 | 12월 13일(일) | 12월 12일(토) ~ 12월 13일(일) |

2021학년도 학생부교과·종합전형 면접 일정 변경 안내

개요

2021학년도 수시 요강이 5월 1일자로 대학별로 발표되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상황으로 인하여 전형 일정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8월 31일 기준으로 확정된 대학별고사 일정의 변화를 정리하였다. 기존의 일정에서 변화된 일정을 반드시 확인하여 수시 원서접수 지원전략 수립에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의사항

1. 이 자료는 각 대학에서 2020년 8월 31일 발표한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현황>에 근거하여 제작됨.
2. 추후에 수정 변경되는 내용은 반드시 대학별 발표 자료를 확인해야 함.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일정 변경

| 대학교 | 지역 | 전형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광주여대 | 광주 | 학생부교과전형 | 10월 29일(목) : 대면면접 | 10월 29일(목) ~ 30일(금) : 비대면 면접 |
| 극동대 | 충북 | 학생부교과(농어촌) 학생부교과(특성화고) 학생부교과(일반학생)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상자) 학생부교과(기회균형대상자) | 11월 12일(목) ~ 14일(토) | 11월 11일(수) ~ 15일(일) |
| 남부대 | 광주 | 학생부교과(일반학생) 학생부교과(농어촌학생) 학생부교과(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 학생부교과(장애인등대상자) | 10월 28일(수) | 10월 28일(수) ~ 29일(목) |
| 대구한의대 | 경북 | 학생부교과(면접전형) | 10월 24일(토) : 한의예,간호 제외 12월 12일(토) : 한의예,간호 | 10월 24일(토) ~ 25일(일) : 한의예,간호제외 12월 12일(토) ~ 13일(일) : 한의예,간호 |
| 동국대(경주) | 경북 | 학생부교과(면접전형-수능최저미적용) 학생부교과(성인학습자전형) | 10월 17일(토) | 10월 17일(토) ~18일(일) |
| 동서대 | 부산 | 학생부교과(교사추천자전형) | 12월 5일(토) | 12월 8일(화)까지 : 비대면(동영상업로드) |
| 동서대 | 부산 | 학생부교과(일반계고교전형) | 12월 12일(토) | 12월 8일(화)까지 : 비대면(동영상업로드) |
| 동신대 | 전남 | 학생부교과(면접전형) | 10월 28일(수) | 10월 28일(수) ~ 29일(목) |
| 부산외대 | 부산 | 학생부교과(글로벌인재-면접) | 12월 5일(토) | 11월 23일(월) ~ 12월 5일(토) : 비대면(동영상녹화) |

| | | | | |
|-------|----|---|--|--|
| 서울한영대 | 서울 | 학생부교과(모든 전형) | 10월 23일(금) | 10월 23일(금) ~ 24일(토) |
| 세한대 | 전남 | 학생부교과전형 | 10월 7일(수) ~ 8일(목) : 면접40% 10월 15일(목): 면접20% | 10월 6일(화) ~ 8일(목) : 면접40% 10월 15일(목) ~ 16일(금) : 면접20% |
| 송원대 | 광주 | 학생부교과전형 | 10월 30일(금) | 10월 30일(금) ~ 11월 1일(일) |
| 수원대 | 경기 | 학생부교과(미래인재면접전형) | 10월 22일(목) ~ 25일(일) | 10월 22일(목) ~ 28일(수) |
| 신한대 | 경기 | 학생부교과(특성화고교졸업자전형) 학생부교과(교육기회균형전형) 학생부교과(농어촌전형) 학생부교과(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교과(사회기여자전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 10월 31일(토) ~ 11월 1일(일) 11월 7일(토) ~ 8일(일) 위 기간 중 1일로 배정 | 10월 24일(토) ~ 25일(일) 10월 31일(토) ~ 11월 1일(일) 11월 7일(토) ~ 8일(일) 11월 14일(토) ~ 15일(일) 위 기간 중 1일로 배정 |
| 영남대 | 경북 | 학생부교과(창의인재전형) | 11월 7일(토) | 11월 4일(수) ~ 7일(토) |
| 우송대 | 대전 | 학생부교과(일반II) 학생부교과(자기추천) 학생부교과(지역인재) | 10월 30일(금) ~ 31일(토) | 10월 28일(수) ~ 31일(토) |
| 인제대 | 부산 |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간호전형) 학생부교과(학생부교과 특성화고교 동일계열출신자전형-간호학과) | 12월 11일(금) ~ 12일(토) | 12월 12일(토) |
| 중원대 | 충북 |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학생부교과(일반전형 II) | 10월 16일(금) ~ 17일(토) | 10월 15일(목) ~ 17일(토) |
| 청주대 | 충북 | 학생부교과(창의면접전형) | 11월 6일(금) ~ 7일(토) : 비즈니스, 인문사회,공과,항공기계공학,무인항공 기학 11월 14일(토) : 보건의료과학,항공 운항 | 11월 6일(금) ~ 8일(일) : 비즈니스, 인문사회,공과,항공기계공학,무인항공기 학 11월 13일(금) ~ 15일(일) : 보건의 료과학,항공운항 |
| 총신대 | 서울 | 교과우수자 | 10월 10일(토) | 10월 24일(토) : 신학,아동,사회복지, 중독재활상담 10월 31일(토) : 기독교교육,영어교육, 역사교육,유아교육 |
| 호서대 | 충남 | 학생부교과 | 11월 19일(목) ~ 20일(금) | 11월 18일(수) ~ 20일(금) |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일정 변경

| 대학교 | 지역 | 전형명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운대 | 경북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 10월 30일(금) | 10월 30일(금) ~ 31일(토) |
| 경인교대 | 인천 | 학생부종합(농어촌학생전형) 학생부종합(국가보훈대상자전형) 학생부종합(서해5도학생전형) 학생부종합(장애인학생전형) 학생부종합(저소득층학생전형) | 12월 12일(토) | 12월 4일(금) |
| 고려대 | 서울 | 학생부종합(일반전형-계열적합형) 학생부종합(일반전형-계열적합형-반도체공학과) | 11월 21일(토) : 인문, 자연 | 11월 21일(토) : 인문 11월 22일(일) : 자연 |
| 광운대 | 서울 | 학생부종합(소프트웨어우수인재전형) | 11월 22일(일) | 11월 20일(금) |
| 광운대 | 서울 | 학생부종합(사회배려대상자전형) | 11월 21일(토) 또는 22일(일) | 11월 20일(금) |
| 남서울대 | 충남 | 학생부종합 | 11월 14일(토) | 11월 14일(토) ~ 15일(일) |
| 동국대(경주) | 경북 | 학생부종합(참사람전형-수능최저미적용) 학생부종합(불교추천인재전형) | 11월 7일(토) | 11월 7일(토) ~ 8일(일) |
| 배재대 | 대전 | 학생부종합(배양영재전형) | 11월 19일(목) ~ 21일(토) | 11월 18일(수) ~ 21일(토) |
| 상명대 | 서울 | 학생부종합(상명인재전형) | 11월 21일(토) ~ 22일(일) | 11월 20일(금) ~ 22일(일) |
| 서울시립대 | 서울 | 학생부위주(종합) | 12월 12일(토) : 학생부종합전형 12월 13일(일) : 고른기회,사회공헌·통합 | 12월 12일(토) : 학생부종합(자연,예체능), 고른기회(자연), 사회공헌·통합(자연) 12월 13일(일) : 학생부종합(인문), 고른기회(인문),사회공헌·통합(인문) |
| 성공회대 | 서울 | 학생부종합(학생부+면접전형) 학생부종합(대안학교출신자전형) | 11월 7일(토) ~ 8일(일) : 대면면접 | 11월 7일(토) : 비대면면접 |
| 세종대 | 서울 | 학생부종합(창의인재) | 12월 19일(토) : 소프트웨어융합대학 12월 20일(일) : 인문,자연,생명,전자,공과 | 12월 18일(금) : 창의소프트학부 12월 19일(토) : 컴퓨터공,정보보호,소프트웨어,데이터사이언스,지능전기정공,인공지능 12월 20일(일): 국어국문,역사,교육,행정,미디어커뮤니케이션,경제,물리천문,나노신소재 12월 21일(월) : 수학통계,화학,스마트생명산업융합,건축공학,건설환경공,환경에너지공간융합,지구자원시스템공,양자원자력공 12월 20일(일) ~ 21일(월) : 국제,경영,호텔관광외식경영,생명시스템,전자정보통신공,기계항공우주공 |
| 연세대 | 서울 | 학생부종합(면접형) | 11월 14일(토) | 11월 11일(수) ~ 13일(금) : 동영상업로드 |

| | | | | |
|---------|----|--|--|--|
| 연세대 | 서울 | 학생부종합(국제형-해외고/검정고시) | 12월 12일(토) | 12월 9일(수) ~ 11일(금) : 동영상 업로드 |
| 연세대 | 서울 |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 11월 7일(토) | 11월 4일 ~ 6일(금) : 동영상업로드 |
| 연세대(미래) | 강원 | 학종합종합위주전형 | 11월 7일(토) : 강원인재,기회균형, 활동우수자,SW창의인재,고른기회 11월 21일(토) : 학교생활우수자 | 11월 7일(토) : 강원인재,기회균형, 활동우수자,SW창의인재 11월 14일(토) : 고른기회, 학교생활 우수자(자율융합제외) 11월 21일(토) : 학교생활우수자(자율융합) |
| 영남대 | 경북 | 학생부종합(잠재능력우수자전형) 학생부종합(사회기여및배려자전형) 학생부종합(기회균형전형) | 11월 21일(토) | 11월 18일(수) ~ 21일(토) |
| 인제대 | 부산 | 학생부종합(학생부종합 자기추천자전형) | 모집단위별 10월 30일(금) ~ 31일(토) 11월 6일(금) ~ 7일(토) 11월 7일(토) ~ 8일(일) | 모집단위별 10월 31일(토) 11월 7일(토) 11월 7일(토) |
| 평택대 | 경기 | 학생부종합(PTU종합) | 11월 8일(일) | 11월 7일(토) ~ 8일(일) |
| 포항공과대 | 경북 | 학생부종합(일반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저소득층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농어촌전형) | 12월 5일(토) | 12월 5일(토) ~7일(월) |
| 한국항공대 | 경기 | 학생부종합(미래인재전형) 학생부종합(고른기회전형) | 12월 19일(토) | 12월 4일(금) ~ 19일(토) |
| 한남대 | 대전 | 학생부종합 지역인재 | 12월 12일(토) | 12월 10일(목) ~ 12일(토) |
| 호서대 | 충남 | 학생부종합 | 11월 21일(토) | 11월 20일(금) ~ 21일(토) |

2021학년도 수능 영역별 가산점 부여 대학

| 영역 | 지역 | 대학 |
|-----------|----|--|
| 국어 | 경기 | 차의과학대 |
| | 강원 | 한림대 |
| | 충남 | 청운대 |
| 수학 (가) | 서울 | 경기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삼육대, 서강대, 서울여대, 성공회대, 성신여대, 세종대, 케이씨대, 한국성서대, 한성대 |
| | 인천 | 경인교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
| | 경기 |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단국대, 성결대, 수원대, 차 의과학대, 평택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세대, 한신대, 한양대(ERICA) |
| | 강원 |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한라대 |
| | 대전 | 건양대, 대전대, 목원대, 우송대, 한남대 |
| | 세종 | 고려대(세종) |
| | 충남 | 건양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백석대, 상명대, 선문대, 순천향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
| | 충북 | 극동대, 꽃동네대, 서원대, 세명대, 중원대, 청주교대, 청주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
| | 부산 | 경성대, 고신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신라대, 영산대, 한국해양대 |
| | 경남 | 경남과학기술대, 경남대, 영산대, 진주교대, 창신대, 창원대, 한국국제대 |
| | 울산 | 울산대 |
| | 경북 | 경운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영남대, 한동대 |
| | 광주 | 광주교대, 광주대, 조선대, 전남대 |
| | 전남 | 동신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세한대, 순천대, 전남대, 한려대 |
| | 전북 | 군산대, 우석대, 원광대, 전북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
| | 제주 | 제주대 |

| | | |
|-----------|----|--|
| 과탐 | 서울 |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숙명여대, 한양대 |
| | 경기 | 차의과학대 |
| | 강원 | 상지대 |
| | 대전 | 대전가톨릭대 |
| | 충남 | 공주대, 단국대 |
| | 부산 | 동아대 |
| | 경남 | 창원대 |
| | 경북 | 동국대(경주), 위덕대 |
| | 광주 | 조선대 |
| | 전북 | 전북대 |
| 수(가) + 과탐 | 서울 | 광운대, 명지대, 서경대, 서울교대, 성신여대, 숭실대 |
| | 인천 | 안양대 |
| | 경기 | 가천대, 대진대, 명지대, 안양대, 을지대, 한경대 |
| | 강원 |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춘천교대, 한림대 |
| | 대전 | 대전대, 우송대, 한밭대 |
| | 충남 | 공주교대, 공주대, 순천향대, 한서대 |
| | 충북 | 건국대(글로벌), 세명대, 청주대, 한국교원대 |
| | 부산 | 동아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
| | 경남 | 경상대 |
| | 울산 | 울산대 |
| | 대구 | 계명대, 대구교대 |
| | 경북 | 경일대, 금오공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경주), 안동대, 영남대 |
| | 광주 | 조선대 |
| | 전남 | 목포가톨릭대, 목포대, 순천대 |
| | 전북 | 군산대, 예수대, 전북대 |

| | |
|----|-----|
| 제주 | 제주대 |
|----|-----|

2021학년도 대학별 수능 탐구영역 반영 과목 수

| 지역 | 반영 과목 수 | 대학 |
|----|------------|---|
| 서울 | 1 | 감리교신학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기독대, 서울여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케이씨대, 한국성서대, 한국체대, 한성대 |
| | 2 |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국민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기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총신대, 케이씨대(간호),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 |
| 인천 | 2 | 경인교대, 인천가톨릭대, 인천대, 인하대 |
| 경기 | 1 |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경기대, 대진대, 루터대, 서울신학대, 성결대, 수원대, 신한대, 안양대, 용인대, 차의과학대(인문), 평택대, 한경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세대, 한신대, 협성대 |
| | 2 | 가천대(의예, 한의예), 단국대, 명지대, 수원가톨릭대, 신경대, 아세아연합신대, 아주대, 예원예대, 을지대, 차의과학대(자연), 한국항공대, 한양대(에리카) |
| 강원 | 1 | 경동대, 상지대, 한라대 |
| | 2 | 가톨릭관동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연세대(미래), 춘천교대, 한림대 |
| 대전 | 1 |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침례신학대, 한남대 |
| | 2 | 건양대(의학), 대전대, 을지대, 충남대, 한밭대 |
| 세종 | 2 | 고려대(세종), 대전가톨릭대, 홍익대(세종) |
| 충남 | 1 | 건양대, 금강대, 남서울대, 단국대(천안), 백석대, 상명대(천안), 선문대, 순천향대, 중부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호서대 |
| | 2 | 공주교대, 공주대, 나사렛대, 순천향대(의예, 간호) |
| 충북 | 1 | 건국대(글로벌), 서원대, 세명대, 유원대, 중원대 |
| | 2 | 극동대, 꽃동네대, 세명대(한의예), 청주교대, 청주대(자연),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
| 부산 | 1 | 동명대, 동서대, 신라대, 영산대 |
| | 2 | 경성대, 고신대, 동아대, 동의대, 부경대, 부산가톨릭대, 부산교대, 부산대, 부산외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
| 경남 | 1 | 가야대, 영산대, 창신대 |
| | 2 | 경남과기대, 경남대, 경상대, 인제대, 진주교대, 창원대 |
| 울산 | 1 | 울산대 |
| | 2 | 울산대(의예) |
| 대구 | 2 | 경북대, 계명대, 대구교대 |
| 경북 | 1 | 경운대, 경일대, 경주대, 김천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대, 대구한의대, 동양대, 안동대, 위덕대 |
| | 2 | 금오공대, 동국대(경주), 영남대 |

| | | |
|----|---|---|
| 광주 | 1 |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조선대, 호남신학대 |
| | 2 | 광주교대, 송원대(자연), 전남대 |
| 전남 | 1 | 동신대, 목포가톨릭대, 세한대, 초당대, 한려대 |
| | 2 | 광주가톨릭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전남대 |
| 전북 | 1 | 예수대, 우석대, 원광대, 전주대, 한일장신대, 호원대 |
| | 2 | 군산대, 예원예대, 우석대(한약, 한의예), 원광대(의예, 치의예, 한의예, 한약, 간로, 작업치료), 전북대, 전주교대 |
| 제주 | 1 | 제주국제대 |
| | 2 | 제주대 |




"행정학"

행정학

행정학 분야는 정부나 공공 분야의 운영과 관리, 즉 행정현상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수많은 유형의 공공 문제에 대응력 있는 행정운영체계를 수립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적절한 관리방법 및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정책학, 행정조직론, 인사행정론, 재무행정론, 도시행정론, 지방행정론, 조사방법론, 계량행정론 등이 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김예은 

학과, 전공 선택 이유

제가 행정학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행정학과가 제 진로와 관련된 학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으로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때 즐거웠고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현장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경찰이라는 직업이 제게 큰 매력으로 다가와 경찰로 진로를 결정하였고 그와 관련된 학과인 행정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행정학과에는 공직이나 법조계에 진출하려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책결정자가 되어,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가가 되어 더 발전된 사회,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큰 꿈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는 학과가 바로 행정학과입니다.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고 이를 해결하여 국가의 운영에 보탬이 되고 싶은 친구들에게 행정학과를 추천합니다.

준비방법

저는 수시 교과와 종합을 함께 준비하였기 때문에 중간.기말고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했고, 학교에서 열린 각종 대회와 다양한 활동들을 모두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점심시간에 시청각실이 비지 않고 계속 사용될 만큼 교내대회가 많았는데 단순한 글쓰기나 경시대회가 아닌 강연 형식의 대회였기 때문에 내용을 구성하는 것부터 발표를 준비하는 것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대회 준비, 동아리 활동, 선도부 활동 등 비교과 활동에 집중하면서 학교과제, 시험 준비까지 하는 것은 날마다 바쁘고 벅차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좋은 성적도, 대회 수상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시험과 대회를 준비하는 내내 걱정되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주어진 시간에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을 만큼 세세하게 계획을 세워 지켜나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내가 세운 모든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지 가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를 보내고 일 년을 보내면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저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면서 3년 동안 자신을 의지하며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한양대학교에 합격한 이유는 '모든 학생에게 주어진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활동에 성실히 참여했는가?'라는 질문에 당당히 답할 수 있을 만큼 학교생활을 성실히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이나 비교과 활동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어진 시간을 잘 배분하여 학교의 모든 활동에 성실히 참여한다면 한양대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의 수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신을 믿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길 바랍니다.



학교(특장점) 및 대학(전공)생활

먼저 한양대학교 행정학과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은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에는 '다이아몬드 학과'라는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7개의 학과가 있는데, 행정학과가 다이아몬드 학과에 포함되어있어 직전 학기 3.5학점을 넘으면 전액 장학금을 받습니다. 이것이 다른 학교와 비교하여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만이 갖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종종 정책학과와 행정학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때는 배우는 과목이 거의 비슷하지만 2학년이 된 이후부터는 행정학과는 행정학과 정책학에 초점을 맞춰 배우고, 정책학과는 법학에 초점을 맞춰 배운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학과에는 장차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명을 가지는 행정부의 일원이 될 학생들이 모여 있기에 사회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배우는데요. 행정학 이외에도 정치학, 법학, 경제학, 철학 등 여러 분야의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행정학과는 암기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행정학과에 들어오셨다가 낭패를 볼 수 있으니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커리큘럼을 꼭 확인하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법학과 정치학, 경제학을 배우기 때문에 '법과 정치', '경제' 과목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행정학을 배울 때 '사회문화'의 내용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에 '사회문화' 과목 역시 공부하시면 행정학과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졸업 후 진로, 우리의 모습

보통 졸업 후 많은 행정학과 학생들은 공직에 진출합니다. 9급, 7급, 5급 공무원 시험을 통과하여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5급 공무원시험은 행정고시라고도 불리며 이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학과 건물 앞 플랜카드에 자신의 이름이 적히게 됩니다. 후배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선배들의 이름을 보며 자신의 꿈을 키우는 것이죠.





하지만 행정학과에서 공무원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학 역시 배우기 때문에 법조계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이와 별개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사실 행정학과 하면 '공무원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 학문을 배우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업에 취직하는 것은 고등학생 친구들이 대입을 준비하는 것과 비슷하게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학과가 취업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행정학과라고 해서 나아갈 수 있는 분야가 한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진로와 관련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꼭 하고 싶은 말

저는 고등학교 재학 당시 꿈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여 관련된 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꿈이 없어 방황하는 친구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았고 꿈이 있더라도 '과연 내가 희망 대학, 진로와 관련된 학과에 진학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저와 같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고민을 했던 대한민국의 수험생으로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보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며 자신을 의지하고, 어떤 순간이 나에게 닥쳐도 나는 이겨낼 자신이 있다는 다짐을 매일 하며 자신을 신뢰해 나간다면 3년이라는 긴 입시 기간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3년의 끝이 행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자공학"

전자공학

전자공학 분야는 지식 산업의 핵심 영역인 컴퓨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정보통신, 가전, 로봇틱스, 신호 및 영상 처리 분야 등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반도체 소자 및 설계, CAD 및 집적회로 설계, 디스플레이공학 컴퓨터 구조 및 설계, 초고주파 회로, 유무선 통신 시스템, 인터넷 및 초고속 컴퓨터 통신망, 신호 및 영상 처리, 멀티미디어 및 컴퓨터 비전, 로봇틱스, 의료 전자공학 등이 있다.

경북대학교 IT대학 전자공학부 양지혜 

재학 중인 학과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스마트 디바이스에 대한 호기심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볼 때면 이것들의 작동원리가 궁금하기도 하였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과(학교)에 입학할 위해 준비한 전형은?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위주로 준비하였습니다. 교과 전형으로도 지원하였지만 교과의 경우에는 성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내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종합의 경우는 성적, 학교생활, 자소서 등 다양한 요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성적에 가장 큰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수학과 과학 성적을 올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교생활의 경우에는 수학, 과학 관련 분야의 대회와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영어 에세이 대회 등을 참가하며 다방면으로 시야를 넓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소서는 정말 공을 들여 썼습니다. 고3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부터 준비하였는데 몇 번이고 자소서를 갈아엎으며 마음에 들 때까지 고쳐 썼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준비했나요?

고3 1학기 기말고사를 마친 후부터 바로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고2 때 써놓은 자소서가 있었지만 모두 갈아엎었습니다. 고3 당시 친했던 선생님과 여러 차례 상담하면서 제가 원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화해 갔습니다. 우선 자소서의 '컨셉트'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소서 1, 2, 3번의 경우에는 공통된 문항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이 여기에 비슷한 내용을 쓰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내용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2번의 경우가 이를 잘 표현할 수 있는 항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의 경우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4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장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보통 4번의 문항은 미래의 꿈에 대하여 서술하라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보고 구체화해 적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수능이 끝난 후에 면접이 있었습니다.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뽑아서 면접위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부분들을 찾고, 이에 대한 대답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 외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면접 질문을 찾아보며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의 기억에 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면접위원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간결하고 확실하게 대답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스토리텔링을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했을 당시 주로 어떤 활동을 했나요?

동아리의 경우, 과학 및 진로 탐구동아리를 통해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근처 대학교에 방문하며 진로에 대한 부분도 구체화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영어 에세이대회, 주제탐구대회, 수학 경시대회, 과학 경시대회 등 학교에서 열리는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선 자소서에서 정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서류 합격에 큰 요소를 차지했을 것입니다. 또한 경북대의 경우는 면접에서 2분 스피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면접에서 나를 표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압박면접이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차분히 대답하였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잘 생각나지 않을 경우에는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한 후에 대답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공에 기초가 되며 도움이 되고 적용할 만한 고교 교과목과 추천도서는?

전공에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은 수학과 물리입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과 벡터의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처럼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한 것은 아니지만 삼각함수 미적분 등 다양한 수학적 개념이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물리는 주로 물리1보다는 물리2의 내용이 더 자주 쓰이는 것으로 생각되며 전자, 전기장, 자기장 등의 분야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 이에 관련된 책들을 읽었습니다. 자신의 관심분야에 맞는 전공 관련 서적을 읽으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전자공학은 많은 분야에 접목이 될 수 있어 다양한 것들을 배웁니다. 우리 학교의 경우는 전자공학부 내에서 전공이 7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현재 가장 인기가 많은 분야는 반도체입니다. 보통은 전자의 흐름, 이로 인해 생기는 전자장, 자기장이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공부합니다.





유사 학과와의 공통점과 차이점

많은 학생이 전기공학부와 전자공학부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사실 두 학과가 배우는 과목 중에 겹치는 과목이 다수인만큼 비슷한 내용을 배우기는 합니다. 또한 전자공학부에 와서도 전기공학과 계열 쪽으로 취업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전기는 전자의 흐름입니다. 즉 전기가 더 큰 범주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전기공학과에는 큰 범위를, 전자공학부에서는 작은 범위를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송전, 배전 등의 분야는 전기공학부, 스마트 디바이스 등과 관련된 분야는 전자공학부에 관련이 높습니다.

졸업한 선배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무엇인가요?

우리 학부의 경우는 다양한 기업에 진출합니다. 주로 삼성, LG, SK에 취업하시는 선배들을 많이 보았으며, 이외에도 한국전력공사, KT, 한화 등 다양한 회사에 진출합니다. 전자라는 분야는 어디에든 사용되는 만큼 모든 회사에서 전자공학부 학생들이 필요합니다.

관련 자격이나 시험은 무엇인가요?

우선 필수적으로 영어 성적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예전에는 토익을 많이 보았으나, 요즘의 추세로는 오픽, 토스 등 스피킹 시험의 성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예외는 없습니다. 그 외에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경우는 주로 전기기사 자격증이 필요로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대입 준비방법

조만기 교사(판곡고등학교)

현재 코로나 19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을 받고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많다. 특히 수도권 학생들은 1학기에 대면 수업을 절반도 못 한 상황이다. 고등학교 2학년은 학교생활을 가장 왕성하게 하는 시기다. 학생회 활동, 동아리 부장 등 다양한 활동에서 앞장서서 계획하고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록에서 학생들의 진로가 명확해지고 다양한 활동들 때문에 학생들의 개별적 특성이 보이게 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거기에다가 각종 뉴스에서는 재학생들이 대입에서 불리하다는 소식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하리라 생각한다.

그런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5월 1일에 발표된 2022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도 입시의 전반적인 특징과 대비할수 있는 방안을 알려줘서 불안감을 없애고자 한다.

2022학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전형 유형별 모집인원의 변화가 수도권 대학에서 크게 일어났다. 전국의 대학교를 기준으로 하면 전년도에 비교해 변화는 크지 않다. 하지만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로 범위를 줄이면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났다.

〈지역별 전형유형 비율 비교〉

| | 2021학년도 | | | | 2022학년도 | | | | 차이(2022-2021) | | | |
|-----|---------|------|------|------|---------|------|-----|------|---------------|-------|------|------|
| | 교과 | 종합 | 논술 | 수능 | 교과 | 종합 | 논술 | 수능 | 교과 | 종합 | 논술 | 수능 |
| 전국 | 42.3 | 24.9 | 3.2 | 20.4 | 42.9 | 22.9 | 3.2 | 21.9 | 0.6 | -2.0 | 0 | 1.5 |
| 수도권 | 21.4 | 34 | 7.2 | 27.1 | 21.1 | 29.7 | 7.9 | 32.5 | -0.3 | -4.3 | 0.7 | 5.4 |
| 서울 | 13.9 | 39.3 | 8.9 | 28.6 | 16.7 | 32.2 | 7.1 | 34.7 | 2.8 | -7.1 | -1.6 | 6.1 |
| 18개 | 8.3 | 44.5 | 11.1 | 29.7 | 11.6 | 35.6 | 8.8 | 37.2 | 3.3 | -8.9 | -2.3 | 7.5 |
| 11개 | 8.2 | 46.0 | 10.6 | 28.5 | 11.1 | 36.3 | 8.1 | 37.1 | 2.9 | -9.7 | -2.5 | 8.6 |
| 7개 | 7.9 | 48.8 | 8.7 | 27.9 | 11.2 | 38.9 | 6.2 | 37.4 | 3.3 | -9.9 | -2.5 | 9.5 |
| 3개 | 10.3 | 57.0 | 3.4 | 23.7 | 12.0 | 43.5 | 3.0 | 37.1 | 1.7 | -13.5 | -0.4 | 13.4 |

특히 전년도까지는 수도권에서는 종합전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고2 학생들부터는 종합전형과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역전되었다. 또한 논술전형이 줄어들고 교과전형에서도 증가하는 상황이 상위권 대학교로 갈수록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2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전형별 특징과 함께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비방안을 알려주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려할 부분은 크게 두가지가 있다. 2015 교육과정의 도입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의 축소라고 볼 수 있다.

2015 교육과정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이 되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진 진로선택과목이 상대평가 9등급으로 성적을 산출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수강해야 하지만 내신에 대한 부담감으로 원활한 선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진로선택과목이 성취평가 3단계(A,B,C)로 성적이 산출된다. 따라서 내신성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상대평가 9등급제보다는 완화가 되었다. 그렇기에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의 선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한 3단계로 성적이 산출되기에 성취도 A를 받았다고 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에 진로선택과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기록이 중요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3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이미 선택한 시기이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라면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을 활발하게 선택하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교과활동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한 2018년에 발표된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서 현재 고등학교 2학년학생들부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는 글자수가 줄어들고 대학교에 제공되는 내용의

범위도 많이 축소되었다. 수상경력이 학기당 1개로 제한되고, 자율동아리 활동이 1년에 한 개만 허용되며 최대 글자수도 30자로 제한되었다. 또한 진로희망사항이 대학에 미제공되고 봉사활동의 특기사항이 기록되지 않는 등의 학생들 개개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거나 축소가 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비교과활동에 충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다면 이제는 비교과 활동에 대한 노력을 수업시간 즉, 교과활동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행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와 연관있는 주제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었지만 상위권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 따라서 자신의 진로와 연계되는 과목을 선택하고 수행평가를 중심으로 수업시간의 다양한 교육활동(토론, 발표하기, 보고서 작성하기 등)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사를 보여주고 학습역량을 보여주는게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속에서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축소되는 과정속에서도 꾸준히 자신의 관심사와 학습에 대한 고민을 보여줄 수 있는 독서활동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다고 본다.

두 번째, 학생부교과 전형 역시 수도권 대학교를 중심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비중이 커졌다. 이는 수도권 대학교에 지역균형선발전형(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지원하는 전형)을 교과성적 위주로 10% 이상 선발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한 변화다.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진로선택과목이 도입되므로 내신성적 산출방식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대학교들이 있다. 9등급제(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과 3단계 성취도(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적이 산출된다. 물론 상위권 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진로선택과목에서 성취도 A를 받는게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진로선택과목을 교과성적 산출에 활용하는 대학교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9등급으로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의 중요도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1학년때는 공통과목, 2학년때는 일반선택과목, 3학년때 많은 진로선택과목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교과성적 산출에 있어서 예년과 다르게 3학년에서 성적이 변화되는 부분이 작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2학년 때까지 내신등급이 학생부교과전형의 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질 수 있다. 물론 3학년에 가서도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미적분, 사회교과 과목은 수능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일반선택이기에 내신성적 산출에 영향을 주지만, 과학II, 기하와 같은 경우는 진로선택과목이기에 많은 대학교의 교과전형에 영향을 안 주게 된다. 2학년 2학기 내신성적 관리에 최선을 다 할 필요가 있다.

〈주요대학 지역균형선발 전형〉

| 대학교 | 전형명 | 추천 인원 | 전형방법 | 대학교 | 전형명 | 추천 인원 | 전형방법 |
|------|--------|----------|-------------|------|---------|----------|---------------|
| 서울대 | 지역균형선발 | 2 | 서류평가70+면접30 | 연세대 | 추천형 | 5% | 교과100(3),면접40 |
| 고려대 | 학교추천 | 4% | 학생부100 | 서강대 | 고교장추천 | 10 | 교과90+비교과10 |
| 성균관대 | 학교장추천 | 4% | 학생부100 | 한양대 | 지역균형발전 | 11% | 학생부교과100 |
| 이화여대 | 고교추천 | 5% | 학생부80+면접20 | 중앙대 | 지역균형 | 10 | 교과70+비교과30 |
| 경희대 | 고교연계 | 6 | 교과80+비교과20 | 한국외대 | 학교장추천 | 20 | 교과90+비교과10 |
| 시립대 | 지역균형선발 | 4 | 학생부교과100 | 동국대 | 학교장추천인재 | 7 | 학생부60+서류40 |
| 홍익대 | 학교장추천자 | 5 | 학생부교과100 | 숙명여대 | 지역균형선발 | 5% | 학생부교과100 |

세 번째, 수능위주 전형의 비중이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교를 중심으로 커졌다. 따라서 정시를 준비하는 재학생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방식 또한 바뀌게 된다. 국어와 수학에서는 공통과목(75점)과 선택과목(25점)으로 구분이 된다. 영어와 한국사는 동일하게 절대평가로 실시되지만 탐구영역은 사회와 과학의 영역 구분이 없이 17개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제2외국어 및 한문 역시 절대평가로 실시된다. 특히 국어와 수학에서 도입되는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 따라서 성적 산출에 다르게 영향을 받게 된다. 벌써부터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게 수능성적을 더 유리하게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 특히 수학과목에서 그러한 고민이 훨씬 큰 상황이다. 하지만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게 유리한지는 아무도 정확한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은 대학교에서 자연계열 학과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미적분 또는 기하를 응시하도록 지정한 곳이 60개 대학이 있다. 이 대학교의 자연계열 학과 또는 지정학과를 지원하려면 확률과 통계를 응시하면 안된다. 탐구영역 역시 66개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학탐구만 응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희망하는 대학교가 수학과 탐구에서 특정 과목을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물론 그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는 선택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유불리를 예상할 수는 없다. 아직 그런 체제의 모의고사도 치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택과목의 유불리를 바라기보다는 자신의 계열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고 공부하는게 대학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논술전형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2학년도부터 적성고사 전형을 실시할 수 없게 되면서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가 논술전형을 신설하였다. 논술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더 넓어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출제 방식 역시 다양해 질 수 있다. 특히 새롭게 논술을 신설한 대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논술이 출제되는지 모의 논술을 통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대학에서 제공하는 각종 논술과 관련된 자료(논술 가이드북, 동영상 등)를 통해서 관심있는 대학교의 내용을 확인하는게 가장 중요한 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전형유형의 비율이 달라졌다. 또한 수시에서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전형 또한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예년에 비해 대입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수시 중심의 대입을 준비했던 고등학교의 방침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 역시 충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지 않고 수능성적 향상만을 위한 준비방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여전히 수시의 비중이 75%를 넘고, 학생부위주 전형의 비중 역시 66% 정도를 유지되고 있다. 또한 수능위주 전형의 경우는 졸업생의 합격 비율도 상당히 높다. 따라서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고등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게 옳은 방법이다. 다만 과거처럼 수시 올인으로 수능을 전혀 준비하지 않는 방법보다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2021년 11월 18일까지 수능 공부도 함께 노력하면서 수시에서도 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하는 전형을 같이 준비하는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진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 노하우 - 학교추천II

안녕하세요. 대입 전형은 매우 다양하고 수많은 하위 갈래가 있지만 저는 제가 주력해서 준비했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요령에 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① 목표 설정하기

아무리 좋은 지도와 이동 수단을 가지고 있어도,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흥미를 갖는 분야는 무엇인지, 본인이 진학하고 싶은 학과는 어디인지,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보고 싶은 학문은 무엇인지 진지하게 사유하고 이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국어국문학과'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서 1학년 시기에는 생활 기록부에 어떤 활동이 기록되도록 해야 할지 계획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중요한 교내 활동들을 많이 놓쳤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자신의 구체적인 진학 목표를 설정한다면 내신 관리와 교내 활동 참여에 체계성을 갖출 수 있게 되므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고교 재학 3년간의 활동 기록을 토대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는 이렇게 구체적인 진학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

② 내신 관리 및 교내 활동

학생부종합전형은 수시 교과 전형이나 정시 입학 전형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생활 기록부를 '정성평가'합니다. 이는 지원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고 입학 학과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지원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여 해당 학과의 전공 지식을 얼마나 잘 수학할 수 있는지가 평가의 중심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목표한 과에 합격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이 얼마나 해당 전공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려는 노력을 펼쳐야 하는데, 그 노력이 바로 내신 관리와 교내 활동입니다. 내신 관리에 관한 내용은 '챕터 2 - 내신 성적 관리 팁' 부분에서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교내 활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활동이란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는 교내 수상 내역, 동아리 활동, 세부 특기 사항, 독서 상황, 봉사 내역 등이 있습니다.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전형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내 활동 기재 내용의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상

자신의 관심 분야를 뚜렷하게 드러낼 수 있는 대회의 수상인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자신의 희망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회의 수상 경력이 있다면 아주 유리하겠지만, 지원하는 학과의 계열 적합성에 부합하는 수상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간호학과 같은 보건 계열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경우의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보건'이라는 키워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교내 CPR 심폐소생술 대회의 수상이 있는 것은 이 경우에 학생부 정성 평가에 있어서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적인 연계성을 갖는 대회의 수상에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봉사상 같은 수상 경력이 있다면 보건 계열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요구되는 사회성, 성실성, 헌신 같은 키워드를 생활 기록부에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전공 희망 분야와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분야의 수상 경력도 긍정적인 평가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방면에 지적 호기심을 갖는 학생이라거나 기본적으로 학교생활 전반에 의욕적으로 활발히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긍정적인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제 관심 분야인 어문 계열과 관련이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가능한 한 많은 교내 대회에 참여하여 수상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중 어문계열 학생들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진 대회로는 영어 말하기 대회, 백일장, 에세이 작성 등이 있었고 다양한 관심사와 학교생활의 적극성을 보여주는 대회로는 수학 주제 탐구 대회, 창업 아이디어 기업가 활동, 과학 주제의 교내 토론 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여한 대회들에서 수상하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심화 및 발전시켜가는 모습과 그 결과물인 보고서 및 학생 소논문은 교과 세부 특기 사항란에 기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자기소개서에서도 자세히 언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아리

본인의 진학 목표에 맞춰서 활동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수상 경력과 마찬가지로 진학 목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더라도 정성 평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요소가 동아리 활동 란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갖습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에 진학하길 원하지만, 심리학 동아리가 개설되지 않아 수학 동아리에 들어간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학생이 수학 동아리에서 배운 확률과 통계 계산 기법을 활용하여 다양한 심리학 검사지에 적용하려는 시도를 거듭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다면 오히려 심리학 동아리에 들어가서 특색 없는 활동을 해왔던 경쟁자들보다 큰 이점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문과대학에 소속되어 있지만, 고등학교 3년 내내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했습니다. 과학 실험에 참여하고 연구 노트를 작성하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가면서 대학에서 깊이 있게 공부할 때 필요한 올바른 학문의 탐구법이나 연구 윤리에 대해 배웠고, 뇌과학과 언어학의 교점을 탐구하여 인지 언어학에 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지원 학과와 관련되어있는 활동을 해온 것은 아니었으나, 융·복합적 탐구 역량을 이용하여 문학과 미디어 콘텐츠 시장에 새로운 파장을 불러일으키겠다는 포부로 대학에 지원하였고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세특 및 행특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내신 성적만큼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에 반대로 낮은 내신 등급이 나온 과목의 취약점을 보완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학 과목의 내신 등급이 국어, 영어 같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이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정성 평가가 아닌 교과 전형의 정량평가를 시행하게 된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하지만 이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가 해당 과목의 어느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꼈고, 수업 시간에는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해당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어떤 탐구 활동을 진행했고 그것은 참여한 교내 대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등을 상세하게 생활 기록부에 기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선생님들께서 작성해주시는 세특 및 행특은 내신 등급과 함께 학업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과목의 특기사항란에 내용이 채워지도록 본인이 신경 써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많은 학생과 한 번에 만나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의 특기사항을 상세히 작성하는 데에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으므로 자신이 특정 과목과 관련하여 활동한 내용은 보고서, 일지 등을 작성하여 학기 말에 선생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독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폭넓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깊이' 그 책을 읽었는지 들어낼 수 있다면 읽은 책의 수가 적더라도 그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는 희망 전공과 관련된 두꺼운 전문 서적을 읽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제 사례를 들어보자면, 저는 독서 상황 란에 얇은 그림책을 기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각 언어권만의 특별한 단어들을 모아 소개하는 책이었습니

다. 비록 책 자체의 수준은 높지 않다고 평가될지 몰라도, 저는 꾸준히 영어와 세계 지리 등 많은 과목에서 '언어'를 주제로 탐구하고 그 모티프를 이 동화책에서 얻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림책에서 소개한 단어들을 관련 전문 서적의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책을 읽더라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읽었는지,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분들이 그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봉사

참여 횟수나 활동 시간보다도 내용이 훨씬 중요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또한, 방학에 단발적으로 몰아서 하는 봉사나 단순 환경미화 활동은 그 활동이 순수한 봉사 정신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의무감에 참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학기 중에 꾸준히, 정기적으로 봉사를 다닌다면 성실성이나 봉사 정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③ 자소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을 배우는 유료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수업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쓴 자기소개서는 큰 강점을 가지지 못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자기소개서는 각각 대학마다 다르게 요구하는 4번 문항을 제외하면 자신의 학업 역량을 소개하는 1번, 가장 의미 있던 활동을 세 개 이하로 서술하는 2번, 배려나 나눔의 경험을 소개하는 3번 영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문항은 지원자에게 소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뚜렷하지만, 지원 학생들은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풍부한 이야기를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성장'이라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키워드는 학업 역량을 소개하는 1번 항목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1~2학년 때 참여한 활동을 언급하면서 해당 분야에 자신이 흥미를 갖고 탐구하게 된 계기를 서두에 간단히 소개하고, 이후에는 그 관심이 어떻게 구체화 되었는지 교내 활동을 중심으로 자세히 서술한 뒤, 마무리 부분에서는 논문이나 전문 서적 등을 참고한 연구 활동을 언급하면서 단순한 지적 호기심을 대학 수준의 탐구로 발전시키는 자신의 학업 역량을 소개하는 플롯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이 1번 항목에 자신의 영어 단어 암기법이나 오답 노트 작성법 같은 고리타분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흔한 소재일뿐더러 노력해봤자 학업 역량을 약간 뽐내는 정도에 그칩니다. 하지만 고교 재학 중 탐구 경험을 쌓아가면서 스스로 관심 있는 분야를 주체적으로 학습해가는 모습을 제시한다면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발전 가능성, 성실성까지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저학년 시기에 미리 자소서를 써두는 것은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추천하지 않는 바입니다.

생활 기록부에 기재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묶는 것이 자기소개서의 핵심입니다. 자기소개서가 평가자분들께 "제 생활 기록부를 이렇게 읽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주는 하나의 도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④ 면접

많은 학생이 면접을 어렵게 느끼고 지레 겁먹어서 긴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면접은 가장 쉽게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재학 3년 동안 생활 기록부를 비롯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자신이 의도한 바대로 해석 또는 평가되기를 바랍니다. 면접에서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평가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즉, 평가자가 "이 학생은 리더십이 뛰어나구나."라고 느끼도록 서류를 준비하는 것보다 직접 면접장에 가서 "저는 리더십이 뛰어난 학생입니다."라고 말하고 그 타당한 근거를 서류에 적혀있는 활동 중에서 제시하는 게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압박 면접에 대한 부담에 미리 겁먹기보다는, 면접에서 어떤 모습을 전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긴장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못한 질문을 받아서 당혹스럽거나 준비한 멘트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면접관님들도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십니다. '긴장하는 것에 대한 긴장이 심해지면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말들을 횡설수설 반복하게 된다거나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나 "심호흡을 잠깐 해도 괜찮을까요?"하고 공손하게 여쭙본 뒤 상황에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말을 잘하고 긴장하지 않는 학생을 뽑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업을 잘 해낼 수 있는 인재를 뽑습니다. 그러니 긴장해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시문 면접의 경우는 굳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원에서 알려주는 것은 고작 두괄식으로 말하라, 말꼬리를 흐리지 마라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 시간에 기출 문제나 시사 이슈를 직접 조사하고 자신의 의견은 어떠한지 정리해보는 편이 더 효율적입니다.

2 내신 성적 관리 팁

① 당연한 이야기지만,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가르치지 않으신 내용은 시험에 나올 리 만무합니다.

이는 동시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어떤 형태로든 출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농담을 포함한 모든 내용을 필기하고, 그것을 외운 뒤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모두 찾아서 풀어보고, 틀리는 이유를 찾아 보완하는 것. 이것이 내신 준비의 전부입니다. 문학 시간에 특정 작품을 배웠다면 일단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몽땅 외운 뒤에 어느 부분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 예상하면서 문제를 만들어보고, 그 작품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적 있는지 체크하고, 비슷한 작품이나 시인의 다른 작품들도 몽땅 출력해서 공부하는 것. 영어 시험 범위까지 100개라면 그 지문 100개에서 변형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예측해서 문제를 만들고, 남은 시간에 그 100개의 지문을 몽땅 암기해버리는 것. 이것을 누군가가 너무 무식한 방법이라거나 암기력에 의존한 공부법이 아닌지 물을 수 있겠지만 이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② 의외로 성적에 영향을 많이 주는 요인은 수업 참여도입니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일단 그 내용을 더 잘 기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학습 태도를 정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줄음을 참기 위해 질문하고, 발표하고, 선생님과 눈을 마주치거나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큰 리액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졸지 않는 수업 태도를 유지할 수도 있고 내용도 잘 기억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미 이 방법은 아주 좋지만, 부차적으로는 선생님께 적극적인 학생으로 기억되어 세부 특기사항에 메리트를 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③ 자율학습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십시오.

수업 시간, 인터넷 강의를 듣는 시간, 사교육을 받는 시간은 자신이 스스로 온전하게 공부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동안 입력받은 정보를 체화하는 시간은 따로 필요합니다. 당일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암기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수시 준비 성공사례

① 수상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대회에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3년 동안의 교내 수상 내용은 60여 개 정도로 기억합니다.

② 동아리 및 봉사

동아리의 경우 융합과학 동아리에서 3년간 활동했습니다. 원래 공학자를 꿈꾸었기에 들어갔다가 문과로 전향한 뒤 다른 동아리로 바꾸려고 했지만, 여전히 과학을 좋아했기에 계속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과학과 경제, 예술, 문화, 언어, 인문학을 엮어서 탐구하는 활동을 자주 했습니다. 자율 동아리로는 야간학교 교육봉사 동아리, 한글사랑 동아리, 멘토-멘티, 주말 독서 동아리, 공학 동아리, 토론 연합 동아리 등에 참여했습니다.

봉사는 200시간이 조금 넘는 정도로 한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초등학교들과 중학생들에게 제2외국어 수업 시간에 배운 중국어 회화 표현을 가르치는 재능기부 봉사를 3년간 꾸준히 해왔고, 야간 학교에서 어르신들께 한글과 사칙연산을 알려드리는 교육 봉사 동아리에서 2년간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③ 세특

세특에는 누구에게나 쓰일 수 있는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배운 내용, 상투적이거나 관념적인 표현 등이 있습니다. 세특은 구체적이고 성장의 과정이 드러날수록 좋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의 학생기록부 평가 방식인 횡단 평가를 상당히 의식하여 각 과목의 세부 특기사항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장치를 많이 심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편이 서류에 유기성을 더 해주어 좋은 것 같습니다.



④ 자소서

1번은 학습 경험을 쓰는 문항으로, 저는 활동의 유기성을 강조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한글 교육 봉사에서 언어 학습 과정에 흥미 느낌' >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연구의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 얻음' > '과학 동아리에서 언어학과 연계하여 인지 언어학에 관한 탐구 진행' > '인지 언어학을 만난 한글 교재 이야기(결과물)'입니다.

교내 활동 문항인 2번은 두 개의 활동을 선정해서 작성했습니다. 먼저 교내 합창 경연대회에서 경연 곡에 맞추어 내레이션을 만들었던 경험입니다. 이 문단의 전체적인 주제는 '문학을 매개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제 희망 진로와 연계한 내용이었습니. 두 번째 활동은 토론 자율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점을 스스로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해가는 발전 가능성 역량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인성을 보여줄 수 있는 3번 문항에는 중국어 회화 재능기부 활동 경험을 적었습니다. '나눔'을 주제로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수능 공부 노하우

수능 공부는 일단 연계 교재를 완벽하게 숙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국어

(1) 화법과 작문 + 문법: 화법과 작문 부분에서 자주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기출문제집을 활용하여 문제 푸는 요령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문법 문제는 기초지식이 없어도 문제에서 주는 정보를 통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지만, 문제 풀이 시간 단축을 위해서 EBS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두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선지만 보고도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정도까지 공부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 연계교재의 문법 부분이 그 전년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반모음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2) 문학: 수능 문학은 가장 준비하기 쉽습니다. 연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연계 교재에 수록된 작품들을 모두 익히면 됩니다. 특히 교재에서 생략되어있는 비수록 부분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문학: 비문학 지문은 연계교재의 한 지문 전체가 하나의 문단 정도로 축약되거나 기본 정보가 되어 수능에서 연계됩니다. 어려운 개념은 무슨 일이 있어도 수능 전까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수학

연계교재가 가장 의미 없는 과목입니다. 개념서를 통해 개념을 완전히 숙지한 이후에는 연계교재보다도 기출 문제집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2-3점대의 빈출 문제 유형을 익히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매일매일 분량을 정해두고 개념과 문제 유형에 대한 감을 유지하면서 4점짜리 문제들에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좋습니다. 수학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리기 쉽지 않기 때

문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영어

연계 체감률이 가장 높습니다. 연계교재의 지문들을 다 외우면 100점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연계교재의 지문들은 난해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제가 연계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지문을 분석한 이후에 중심문장을 찾거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1등급이 아니라 2-3등급이 목표인 분들은 영단어 암기에 집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탐구과목

저는 세계지리와 사회문화를 선택했습니다. 세계지리는 암기에 자신 있는 학생분들이라면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다만 그래프나 자료의 형태가 겹치지 않게 매번 변형되어 나오기 때문에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자주 나오는 국가들의 속성은 모두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원래 인강을 잘 듣는 편은 아니지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회문화는 도표 킬러 문제만 맞추면 문제가 없는 무난한 과목이기에, 거기에 전념하시면 됩니다. 개념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개념 설명의 인강을 들어 개념을 잡은 것이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모두 힘내세요!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식품동물생명공학부 20학번(학생부종합전형)

1 합격을 위한 나만의 전형별 준비노하우

안녕하십니까. 2020년 대입정보포터 어디가 모니터링단입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했던 제 경험을 쓰려고 합니다. 제 경험일 뿐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기록부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전형과는 달리 생기부가 중요합니다. 생기부안에도 여러 항목이 있는데 먼저 진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진로와 진학하고자 하는 과가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유를 적을 때도 되도록 다른 친구들과 구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경험을 넣어서 적는 것이 더 좋고 나중에 면접을 준비할 때도 더 편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상내역이 있습니다. 수상내역은 자신이 가고자하는 학과와 관련된 과목수상내역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수학경시대회 우수상을 받았고 2,3학년 때 생명경시대회 수상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시대회는 학교마다 모두 출제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법은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부능력특기사항이 있습니다.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는 진로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넣기 위해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세특에 적어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2때 생명수업을 듣다 궁금한 점이 생겨서 스스로 정크DNA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고 그렇게 해결한 궁금증을 친구들에게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이 세특에 적혔습니다. 물론 학교생활을 착실히 한다면 선생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적어주시지만, 본인이 학과와 관련된 활동을 직접하고 그 활동이 세특에 들어간다면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행동발달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세특에는 적지 못하는 활동이 들어가면 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고2때 주제를 정해서 논문을 작성하고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KQ라는 논문발표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공을 들였던 프로젝트라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중에 면접과 자기소개서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동아리

동아리 역시 중요해서 학과와 맞는 동아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1,2학년 때는 화학생물동아리에 가입해서 활동하였습니다. 그 동아리는 실험위주로 하는 동아리였는데 고3때는 실험보다는 진로와 관련된 지식을 얻고 싶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친구들과 함께 정규동아리를 하나 개설하였습니다. 동아리 내에서 각자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공부하여 발표하고 토론하는 식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정규동아리와 별개로 자율동아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정규동아리는 이미 무엇을 할지 정해져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동아리를 개설해서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생명윤리와 같이 다양한 생명관련 주제를 가지고 토론, 토의를 하는 자율동아리와 고급수학을 공부하는 자율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했었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임원활동

사실 반장, 회장 같은 임원을 맡는 것 자체는 큰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임원활동을 하며 학급 혹은 학교의 대표로 하게 되는 활동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1,2는 학년장 겸 부회장을 하였고 고3때는 회장을 하였습니다. 고2때 학교대표로 부산시내의 학교대표들이 만나서 부산시장과 함께 현재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 말고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였고 나중에 자소서를 적거나 면접을 볼 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라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내신관리입니다. 내신관리에 관해서는 2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 내신성적 관리 팁

내신관리는 사실 학교마다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고를 다녔던 제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필기해야 합니다. 수업을 듣다보면 선생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거나 길게 알려주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친구들과 스터디모임을 형성하세요. 저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스터디 활동이외에 정독반친구들 8명 정도와 같이 공부하고 서로 의지하였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를 하게 되면 경쟁심도 생기게 되어 더욱 효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웬만하면 야간 자율학습을 빠지지 않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분명 공부에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야자를 빼더라도 본인 공부를 알아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학교를 벗어나서 다른 곳을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손해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자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감시도 하고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본인도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3 수시준비성공사례

첫 번째로는 수상내역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생명 쪽의 진로를 원했기 때문에 생명분야와 수학분야의 경시대회 수상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결국 수학경시대회에서 3년 모두 입상하였고 마찬가지로 생명경시대회도 고2,3때 입상했으며 그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대회, 국어 대회 화학 경시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하여 약 30개 정도의 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외활동을 들 수 있습니다.(2020학년도는 교외활동이 생기부에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교외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회장으로서 학교대표로 회의를 하러 간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험을 해서 논문을 작성하여 대회에 나갔습니다. 약 6개월에 걸쳐 실험과 논문작성을 하고 전국 대회에 참여하여 제 실험내용을 발표하고 다른 친구들의 연구내용을 들으며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고 나중에 자소서와 면접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유명한 동아리가 두 개 있었는데 하나가 화학생명동아리이고 나머지가 물리동아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생명동아리에 들어가서 화학과 생명을 주제로 다양한 실험을 하였고 보고서를 적으며 단순 학교 수업시간에는 할 수 없는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3학년 때는 직접 정규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활동하면서 원하는 학과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2학년 때부터 꾸준히 자율동아리를 하면서 나에게 맞춰져있는 활동을 함으로서 여러 지식을 얻은 것은 물론 자소서나 면접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수능공부 노하우

국어

기본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지문을 이해할 때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라도 책을 꾸준히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제 공부의 기본적인 모토는 많이 푸는 것이어서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문제집도 정말 많이 풀었습니다. 고3 초반에 1년 동안의 대략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제 어떤 문제집을 사서 언제까지 풀 것인지 를 미리미리 정하고 1년 동안 그 계획에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모의고사나 문제집을 풀 때 틀린 문제가 있으면 빠지지 않고 오답을 작성했습니다.

화작: 화법과 작문은 가장 쉬운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따로 개념 공부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쉬운 만큼 모의고사를 풀거나 내신에서 절대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꾸준히 풀어줘야 합니다. 저는 고3 입학하기전 2월 달에 수능특강 화작문부터 풀기시작해서 입학하기 전에 한권을 다 풀었고 그 뒤로는 학교수업만 열심히 들고 모의고사를 푸는 것 이외에는 화작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어모의고사를 하루나 이틀에 하나씩은 풀었고 방학 때에는 하루에 두 개씩 풀 정도로 모의고사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따로 화작 책을 사서 풀지 않았지만 만약 모의고사를 자주 풀지 않으면 화작책을 하나 사서 일주일에 할 분량을 정해서 꾸준히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화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문법: 매년 초반에 전체적인 문법 개념을 공부했습니다(학원수업으로요). 고3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두 달 정도는 문법개념을 공부하고, 수능 전에는 마지막 정리와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지를 체크했습니다. 개념을 다 정리한 후에는 화작과 마가지로 따로 문제집을 사서 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모의고사를 푸는 것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수능 직전에 문제집을 하나 사서 개념을 안보고 하루 이틀 만에 다 풀고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를 체크하고 헷갈리는 개념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독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분야가 독서였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는 독서지문의 이해가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가장 오답률이 높은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많이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화작문과는 달리 독서는 모의고사를 푸는 것과는 별개로 문제집을 사서 매일 3지문씩 풀었습니다. (모의고사를 너무 많이 풀어서 기출문제집을 사면 아는 지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유명하지 않은 문제집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지문을 문단별로 요약하고 중심문장을 찾으며 문제풀 때 핵심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했습니다. 독서지문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별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프로이트, 공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 등등 자주 나오는 인물과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따로 인터넷을 찾아보며 미리미리 공부해 두었습니다.

문학: 문학은 다양한 작품을 읽는 것을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 한 달 전까지 학원을 다니며 여러 작품들을 보고 공부했으며 모의고사를 풀고서도 처음 보는 작품들은 주제를 찾아보며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누군지에 따라 주제를 바로 알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주 등장하는 작가는 어느 시대 사람인지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미리 공부했습니다.(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시대 사람인 이육사) 고전시가의 경우에는 읽는 법과 몇 가지 단어들만 알면 주제파악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표기를 읽는 방법을 연습하고 특징의미를 함축하는 단어들을 외웠습니다.(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대나무 같은 단어)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은 지문을 읽으며 인물들을 체크하고 그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보며 공부하였습니다. 고전소설의 경우에는 현대소설에 비해 주제가 더 단순하기 때문에 고전소설에서 잘 나오는 주제들은 미리미리 몇 개를 외웠습니다.(권선징악과 같은 주제와 그 주제일 때 보통 나오는 악인과 선인의 대립구조 같은 거) 현대시는 고전과 마찬가지로 특징의미를 내포하는 단어를 외우면서 공부했습니다. 시나리오나 극은 읽으면 크게 어려운부분이 없어서 따로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수학은 문이과의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공부했는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고2까지는 출제경향이 준킬러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킬러문제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킬러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고3부터는 킬러문제가 옛날에 비해 쉬워진 반면 준킬러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서 준킬러문제를 푸는데 치중하였습니다. 시중에 킬러문제만 제외하고 내는 모의고사가 있는데 그런 것을 구해서 풀었고 킬러문제대신 준킬러문제를 푸는 대신 양을 더 늘려서 하루에 모의고사 하나씩은 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학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 나오는 유형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유형은 통째로 풀이법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논술전형을 준비하면서 여러 공식들을 증명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

모든 과목을 통틀어서 영어가 가장 취약했고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1까지는 공부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으나 고2부터 영어의 필요성을 느끼고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문법을 공부하고 정리노트에 정리해서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단어는 여러 단어장을 쓰기보다는 소수의 단어장에 있는 단어들을 모두 외우고 했기 때문에 단어장 하나를 5번 정도 외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하루에 두 개 방학 때는 3개씩 풀면서 일단 많이 풀려고 했고 따로 문단 요약과 같은 어려운 분야는 문제집을 병행하였습니다.



탐구과목

영어와는 달리 모든 과목 중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1때 개념을 잡은 후에는 기출을 위주로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과목당 4개정도씩은 풀면서 감을 유지하였고 20번까지 웬만하면 다 풀 수 있게 되자 시간을 줄이는 데에 집중하였습니다. 생물 같은 경우는 유전부분이 경우의 수가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많았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다보니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도 어떤 것일지 감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기를 바라고 화학의 경우는 생물과 달리 딱딱 떨어지기 때문에 푸는 방식만 익혀두면 킬러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타

저는 일단 많이 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과목의 문제들을 많이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대입정보 사이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사이트를 통해서 모르는 문제도 많이 물어보기도 했고 여러 정보들을 빠르게 알아낼 수도 있었으며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다양한 자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정독반 친구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하며 서로 모르는 문제를 물어보고 가르쳐주며 공부하였습니다.